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0권 19호(다해) 2010 · 4 · 4

## [묵상]



예수님 부활의 현장 <12세기, 금과 에나멜, 성 마르코 대성당, 베니스, 이탈리아>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지고  
아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찢던 수건,  
죽음의 표징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던,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표징들.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아버지의 뜻을  
자유롭게 따르는 삶  
이것이 저희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고생하신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란 사실을,  
그러나

그 끝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桓-

[martinlee0501@hotmail.net](mailto:martinlee0501@hot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아침 미사 (레지오)<br>저녁 미사         | 오전 9:00<br>오후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M.E. Sharing (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5: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 꾸리아<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br>첫째/셋째주 - 대학부 (PACEM)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후 1:00<br>오후 2: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부활대축일<br>낮 미사 | (연)곽명희 마리아, 이금순 마리아, 장현숙 발바라, 이영자 마리아, 엄도로태오, 장숙환 수산나,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김영수 테레사, 최복덕마리아, 이현호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중환 야고보, 최병기 요셉, 정요임 안나, 최병임, 방영자                                                        |
|               | (생)이덕철 루카 & 순자 비비안나 가정, 이행자 리드비나, 이종원 베드로 & 아녜스 가정, 이종민 요셉, 제프리 마틴 & 마리아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김성택 프란치스코, 홍석철 모세 & 정란 클라라 가정, 권희철 클레멘스가정,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가정, 김별 스텔라, 김나영 마리아, 김요세피나, 토런스 북구역가족, 구마리아네 수녀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화답송** ①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전례사가 70 참조>  
②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③  
④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 하고자.⑤  
⑥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⑥

제 2독서 콜로새서 3,1-4<또는 1코린5,6-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부텨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①알렐루야.  
②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③

**복음** 요한(John) 20,1-9<또는 루카 24,1-12>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오늘의 성가

|    |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
| 입당 | 162         |
| 봉헌 | 164,168     |
| 성체 | 169,166     |
| 파견 | 170         |

##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30).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가 주 예수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다시 한 번 "하느님의 말씀"(요한 3,34)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계시가 인간 생명에 대해 말해 주는 것에 대한 이 묵상의 가장 심오하고 고유한 의미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1,1-3)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고 주어진다. 이 선포와 선물 덕분에 우리의 육체적, 영적 생명은 이 현세의 단계에서도 그 충만한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된다. 실제로 지상에서의 우리 삶이 향하고 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인 인간 생명에 관해서 말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정화하고, 고무하며, 그 충만한 완성으로 이끈다.

### ▶생명은 언제나 선택한 것

31). 생명에 관한 충만한 복음 메시지는 구약성서에서부터 준비된 것이다. 특히 구약 신앙 체험의 핵심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명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모든 사내아이들에게 드리운 죽음의 위협으로(출애 1,15-22 참조) 이스라엘이 대가 끊길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능력을 가진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가 파라오의 횡포한 변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느님의 인자하고 강한 사랑의 대상이다.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은 주체성의 증여를 뜻했으며, 불멸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뜻했다. 그 속에서 하느님 발견과 자아 발견은 동시에 진행된다. 출애굽은 기초적인 체험이었으며, 미래의 본보기였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언제나 자신의 존재가 위협을 당할 때는 새로운 신뢰로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그분 안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는 내가 빚어 만든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4,21)

(◆계속)

## 교회의 현재로서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4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묻힌 무덤에 가는 여인들의 이름과 숫자가 복음서마다 다르며, 그들이 무덤에서 만나는 젊은이/천사의 수 역시 복음서들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 또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언사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대한 여인들의 반응도 복음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4복음서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히 증언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상 예수의 죽음 이후 무덤을 찾은 첫 인물들은 (놀랍게도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의 주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여인들이 전하는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은 바로 오늘날 전세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복음사가의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에 대한 몇몇 음모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시침 뚫 뚫고 그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도주하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급기야 어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예수가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반대로 부정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단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이 세상의 삶으로 회귀하는 사건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활사건을 마주하는 인간은 하나의 선택 앞에 놓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건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긍정하거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우연의 산물로 규정하며 그 궁극적 의미를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부활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의지, 즉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살아오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의 선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아직 예수 부활의 의미를 세상 안에서 생생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이들은 차갑게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을 희망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떠나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우리 선택의 참 의미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을 사랑하지만 죽음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부활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백성의 현재입니다.

◆좌승정 베네딕토 신부/가톨릭대 성서신학 교수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부활성야미사             | 학생 미사 | 부활대축일미사           |
|----------------|--------------------|-------|-------------------|
| 해설자            | 최진수<br>애우세비오       | 주일학교  | 장미영<br>메카엘라       |
| 제1독서자<br>제3독서자 | 유철희 배오로<br>강혜원 아네스 | 주일학교  | 제1독서자<br>이제용 안드레아 |
| 제5독서자<br>제7독서자 | 김교복 레오<br>전하현 마리아  | 주일학교  | 제2독서자<br>이혜선 안젤라  |
| 제물봉헌자          | 세영새자               |       | 도런스<br>서 2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채승희<br>에스터  | 염영숙<br>마리아 |
| 제1독서자 | 이태호<br>바오로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박혜경<br>페나타  | 전하현<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월월 알렐루야 월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부활성야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9명의 형제자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  
니다.

- 새영세자 : 김대영 마테오, 김복희 로사리아, 김세중 벤자민,  
박완철 다니엘, 석순영 아네스, 성미선 리디아,  
임찬우 이나시오, 장수영 파트리시오,  
정세영 안토니오 \* 첫영성체 박지영 릿파
- 축하식 : 오늘 부활대축일 미사후 친교장

◆ 제1회 부활맞이 친선탁구대회 결승전

지난 1월24일 리그전으로 개막된 본당 탁구대회가 2개월 이  
상의 열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부활대축일(4일) 미사후에  
결승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12개팀 중 구역 2팀과 단체 2팀  
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응원합니다.

- 토런스 서 vs 토런스 북 ● 양엽/성모회 vs 대건/자모회
- 구역우승팀 vs 단체우승팀의 최종 챔피언전이 있습니다.

☞ 친선탁구대회 결승전중 음료와 먹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 \* 목적 : 탁구대회 참가자와 응원교우 독려/대건회 기금 조성
- \* 메뉴 : 두부김치, 족발, 묵부침, 음료 등
-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대건회장 ☎(310)796-6960

◆ 4월 병자 영성체 : 8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 양엽회, 자모회, 성모회, 대건회, 이재정 사도요한,  
Kalantar family, 김순희 모니카, 익명
- 현금 : \$1,200(그외 장난감, 인형, 문구용품 다수)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모금 중고등부 친선 체육대회

- 일시 : 4월11일(주일) 낮12시30분, 본당 잔디구장
- 행사 : Frisbee Football & 복음나누기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21-4755

◆ 초상(영정)사진 무료 촬영해드립니다.

- 일시 : 4월18일(주일) 낮12시30분~오후 2시, 강당
- 대상 : 만 60세 이상 본당 어르신 및 주변 친지들
- 문의 : 이진행 힐라리오 홍보부장 ☎(424)222-9091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본당에서 4쌍 참가

- ♡박상준 다미아노 & 정현숙 세레나 ♡김용 스테파노 &  
박문주 엘리사벳 ♡조윤영 아오스딩 & 조희숙 안젤라  
♡금영도 베드로 & 김유미 크리스시아
- 일정 : 4월30일(금)~5월1일(주일) 2박3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연락 : 김유스티노 & 최연 루치아 대표부부 ☎347-1665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옷 수집합니다.

- 수집장소 : 친교장 앞쪽 수집함
- 모든 연령대, 모든 종류의 옷(현옷은 깨끗이 손질해서 주십  
시오.) ☎(310)283-5879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 부활축제 본당 엠마우스

- 일정 : 4월5일(월)~7일(수) 오후 6시까지 사무실 휴무
- 7일(수) 저녁미사(7:30pm) 있습니다.
- 주님께서 동행하는 여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  
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4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전신자에 육개장 대접)
- 4월11일(주일) : 토런스 남2반(콩나물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덕희          | 강인모 | 김박기 | 김병태 | 김성현          | 김완태 | 김광자 | 김박기 | 김병태 | 김원호 | 김일선 | 김주량 |
|------|--------------|-----|-----|-----|--------------|-----|-----|-----|-----|-----|-----|-----|
|      | 강원호          | 김일선 | 강재영 | 강주량 | 김찬구          | 김충섭 | 김찬구 | 김충섭 | 김봉길 | 김현숙 | 민정근 | 백종열 |
|      | 강풍간          | 김현숙 | 류태우 | 민정근 | 박동수          | 박종열 | 신순철 | 양영관 | 엄세종 | 오세원 | 오현희 | 육재면 |
|      | 산순철          | 양영관 | 엄세종 | 오명섭 | 오세원          | 오일순 | 윤화경 | 이근태 | 이병우 | 이태욱 | 임한나 | 정충로 |
|      | 오현희          | 우영희 | 육재만 | 윤석구 | 윤화경          | 이근태 | 정훈모 | 조준제 | 최진수 | 한금순 | 한창주 | 한해숙 |
|      | 이병우          | 이석진 | 이태욱 | 암한나 | 정충로          | 정훈모 | 황인종 | 황지영 |     |     |     |     |
|      | 조준제          | 최진수 | 한금순 | 한창주 | 합계 : \$6,185 |     |     |     |     |     |     |     |
|      | 황지영          |     |     |     |              |     |     |     |     |     |     |     |
| 미사헌금 | \$2,793      |     |     |     |              |     |     |     |     |     |     |     |
| 성전헌금 | 합계 : \$4,210 |     |     |     |              |     |     |     |     |     |     |     |

## 공지사항

### ◆ 주일학교 부활절 행사

- 초등부 : 은총시장, 미니 올림픽
- 중,고등부 : 미니 올림픽
- 시간 : 오늘(4일) 오전 10시30분~낮 12시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마감이후) \* 마감: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문의 :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와 대부분은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함

##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 각 한인성당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단합을 위한 친선체육대회.
- 일시 : 4월18일(주일) 오후 1시~7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 문의 : 최인용 안드레아 백삼위청년회장 ☎(310)386-0336

### ◆ 미주 가톨릭방송 기금모금 골프대회

- 일시 : 4월20일(화) 낮12시30분
- 장소 : Westridge Golf Club(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
- 경기방식 : 샷건 플레이, 144명
- 본당별 선수명단 제출 : 3월28일(주일)까지
- 광고희망자, 티박스 스폰서 접수 : 3월28일까지
- 문의 : 대회집행위원장 이재정 사도요한 ☎(562)403-7345

### ◆ 사우스베이지역 교회대항 축구대회

- 일시 : 4월17일(토)
- 대상 :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축구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임면조 바오로 ☎(310)404-5991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구역장 / 반장 회의 | 오후 1시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모임의 날 | 오전 9시30분, 오후 1시 |
|-------|-----------------|

## 4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 부 장<br>차 장<br>차 장                |     |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br>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br>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남평자 데레사<br>328-0847                                                     | 지정완 안젤라 972-8292<br>4/10(토)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김찬구 요한 782-7437<br>4/10(토) 오후 7시 성당       |
|                                       | 3   | 신덕례 데레사<br>494-1390                                                     | 신덕례 데레사 494-1390<br>4/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박정애<br>소화<br>데레사<br>218-7340 | 1   | 김순희 모니카<br>328-1817                                                     | 이병찬 543-8084<br>4/9(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박야고보&세실리아 619-7763<br>4/10(토) 오후 6시       |
|                                       | 3   | 장정전 베로니카<br>803-7798                                                    | 김미성 미리암 798-6540<br>4/13(화) 오전 10시30분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최옥희 데레사<br>378-4183                                                     | 엄영숙 마리아 373-5662<br>4/16(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양희숙 마리아 325-6982<br>4/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이혜선 안젤라<br>793-7733                                                     |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br>4/9(금) 오후 7시30분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권병연<br>리디아<br>938-3255       | 1/2 | 최미열 클라라<br>895-8624                                                     | 최미열 클라라 895-8624<br>4/17(토) 오후 7시         |
|                                       | 3   | 대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br>4/10(토) 오후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8360      | 1   | 최길숙 요세피나<br>997-9006                                                    | 최재은 베드로 997-9006<br>4/9(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김병학 안드레아 544-4807<br>4/9(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김난숙 마리아 938-4529<br>4/16(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유희영 클라라 377-2806<br>4/13(화) 오전 10시30분     |

##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무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

시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되살아

나셔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

니다(1코린 15,3-4 참조).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시대와 종교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미래의 행복한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도 바로 여기, 생명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도외시한 인간 사회의 발전과 행복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떠한가? 생명 경시의 풍조와 반 생명 문화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50년 동안 해마다 신생아 수의 두 배가 넘는 150만여 건의 인공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당장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과 악의 요소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아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태

아는 아무 죄도 없이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공낙태만큼 개탄스럽고 잔혹한 행위는 없습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친의 사망이나 실종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유복자도 당연히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원의 판례에서도 태아의 인격과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태아도 수태된 때부터 인권이 국법으로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아는 수태된

순간부터 엄연히 인격의 근원으로

로서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입니

다. 다행히 인공낙태방지를 위한

일부 용기있는 의료인들의 활동

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인공낙태방지의 진정한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호하려는 범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의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입법 등 실제적인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생명 경시와 반 생명의 문화는 우리사회가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물질을 우선적 가치로 선택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

대적인 소명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도 소외됨 없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책임과 사명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